

단신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서울 노원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7월 14일 중계동 중원초교 일대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서울 노원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7월 14일 상계동 동일초교에서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을 했다.

무료급식 봉사 서울 서초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7월 10일 양재2동 느헤미야 다음국제 학교에서 무료급식봉사를 했다.

서울 노원구지회 여성회는 7월 9일 하계동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무료급식봉사를 했다.

장학금 전달식 서울 관악구지회는 6월 20일 서원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로잔치 개최 인천 남동구 남촌도림동분회는 6월 20일 남촌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해드렸다.

어르신 나들이 행사 서울 서대문구지회는 6월 19일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국립중앙박물관 나들이 행사를 했다.

사랑의 반찬나눔 인천시지부 여성협의회는 6월 18일 송의동 자유회관에서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했다.

불법카메라 단속 활동 인천 연수구지회는 6월 7일 연수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선학어린이공원내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단속 활동을 벌였다.

서울시지부

국리민복 실천 다짐 조직간부 합동산행

박종환 총재, 이학용 회장 등 조직간부 1500명

서울시지부(회장 이학용)는 6월 29일 관악산 제1광장에서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이학용 회장, 김철 수석부회장 및 조직간부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리민복 실천 다짐 조직간부 합동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국리민복 실천다짐대회와 2부 산행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국리민복 실천 서울현장 낭독, 관악산 산행과 행운권 추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6·25 전쟁음식 재현 행사

서울 중랑·종로·서초-인천 동구·서구·옹진·연수·계양지회

서울 중랑구지회(회장 전찬태)는 6월 25일 면목역 광장 앞에서 '6·25전쟁음식 시식회 및 안보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종로구지회도 이에 앞서 6월 22일 종로1가 영풍문고 본점 앞에서 '6·25 전쟁음식 시식회'를 가졌다. 서초구지회(회장 김대영)는 6월 16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6·25전쟁음식 재현 시식회를 펼쳤다.

인천 동구지회(회장 김철수)는 6월 25일 동인천북광장에서 시민과 학생들 대상으로

보리주먹밥, 속개떡 등을 나눠주며 6·25전쟁음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서구지회(회장 강신덕), 옹진군지회(회장 장기웅)와 연수구지회(회장 심

재성), 계양구지회(회장 김춘수)도 같은 날 각각 주요 장소에서 6·25전쟁음식 재현 행사를 가졌다. (사진=인천 계양구지회)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서울시지부

서울시지부(회장 이학용)는 6월 22일 방배동 서문여자고등학교 성산당에서 2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했다. 이날 교육에선 북한이탈주민 출신 원성에 씨가 감사로 나와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서울 관악구지회

서울 관악구지회는 6월 29일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홍보물티슈 1500개를 배포했다.

서울 노원구지회

서울 노원구지회(회장 이대규)는 7월 2일 하계동 홈플러스 앞 광장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회원들은 '교통안전'과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전단을 무료로 나눠줬다.

시민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서울 종로구지회

서울 종로구지회는 7월 4일 지하철 1호선 동묘역 일대에서 보행중 스마트폰 안보기, 오토바이 안전운행하기 등 시민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회원들은 캠페인이 끝난 후 주변의 쓰레기와 오물을 치웠다.



실종유괴아동 예방교육

인천 남동구지회

인천 남동구지회(회장 김서환)는 7월 11일 논현동 논곡초등학교 강당에서 1~3학년 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실종유괴아동 예방교육을 전개했다.

이날 교육에선 박용호 전 남동경찰서 형사반장이 강사로 나와 '아동범죄 예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미야방지 요령을 교육하고 아동범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